



주 제:	“순교자”	“김대건 안드레아와 정하상 바오로 동료 순교자 대축일”	2008년 9월 21일
복음 묵상:	[루가 9,23-26]	[지혜 3,1-9]	[로마 8,31-39]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나라의 103위 순교성인과 수많은 순교자들은 신앙을 위해 자신을 포기한 채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른 분들이다. 자신의 지위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한 모든 것을 포기하였고, 박해의 고통이라는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죽음’도 피하지 않으신 분들이다. 순교자들이라고 자신이 소중하지 않았거나 고통과 죽음이 두렵지 않았겠는가! 단지 그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 성부 하느님이 전부였듯이 그들에게도 하느님이 전부였기 때문일 것이다.

죽음도 말할 수 없었던 우리나라 순교자들의 하느님을 향한 사랑! 바오로 사도의 말씀이 이를 잘 표현하고 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천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의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로마 8,35.37-39).

(수원 표창현 신부님 강론에서)

### 1. 가족 동정 및 기도 요청

- 반주자 최상진 엘리사벳 자매님 자제분 학교 문제로 9/19 일 LA 에 가십니다. 편안한 여행되십시오. 자매님 여행중에 안영희 세실리아 자매님이 반주를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 박영아 소피아 자매님, 주말 사촌 결혼관계로 LA 로 가십니다. 즐거운 여행길이 되시길 바랍니다.
- 지휘자 김인숙 세실리아 자매님 9/25(목)부터 10/1 일까지 산디에고로 가족 여행 떠납니다. 즐거운 여행,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 김재훈 세실리아 자매님과 김순덕 카리따스 자매님이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채 간병중에 있어오니 하루 빨리 건강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중에 주님의 자비를 청하여 주십시오.

**알림** 성탄 성가 연습은 10월 첫째 주일((10/5) 부터 시작합니다. 단 그사이에 매주 아침 연습은 계속있으니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 복음 [루가 12,15-21]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제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거나 망해 버린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아버지의 영광에 싸여 거룩한 전사들을 거느리고 영광스럽게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오늘의 성인"♡

+ 오늘의 성인 :

고순이 바르바라, 권득인 베드로, 권진이 아가타, 권희 바르바라, 글리체리오, 김대건 안드레아, 김 데레사, 김 루치아, 김 루치아, 김 바르바라, 김노사로사, 김성우 안토니오, 김성임 마르타, 김아기 아가타, 김업이 막달레나, 김유리대 울리에다, 김임이 테레사, 김장균 안나, 김제준 이나시오, 김효임 골롬바, 김효주 아네스, 남경문 베드로, 남명혁 다미아노, 남이관 세바스티아노, 남종삼 요한, 다블뤼 안토니오, 디나, 모방 베드로, 민극가 스테파노, 박봉손 막달레나, 박아기 안나, 박종원 아우구스티노, 박큰아기 마리아, 박후재 요한, 박희순 루치아, 베르너 시므온, 불리외 루도비코, 브르트니아르 유스도, 빈첸시오 마텔가리오, 샤스탕 야고보, 손선지 베드로, 손소벽 막달레나, 손자선 토마스, 아가피토, 앙리 도리 베드로, 앙베르 라우렌시오, 에메리타, 에빌라시오, 에우스타시오, 오매트로 베드로, 우세영 알렉시오, 우슬입 수산나, 원귀임 마리아, 위앵루가, 유대철 베드로, 유소사 체칠리아, 유정률 베드로, 유진길 아우구스티노, 이 가타리나, 이 바르바라, 이 아가타, 이간난 아가타, 이경이 아가타, 이광렬 요한, 이광현 아우구스티노, 이매임 테레사, 이명서 베드로, 이문우 요한, 이소사 아가타, 이연희 마리아, 이영덕 막달레나, 이영희 막달레나, 이윤일 요한, 이인덕 마리아, 이정희 바르바라, 이호영 베드로, 임치백 요셉, 장성진 요셉, 장주기 요셉, 전경철 아가타, 전장운 요한, 정국보 프로타시오, 정문호 바르톨로메오, 정원지 베드로, 정의배 마르코, 정정혜 엘리사벳, 정철엽 가타리나, 정하상 바오로, 정화경 안드레아, 조막달레나, 조신철 가롤로, 조유희 요셉, 조증이 바르바라, 조화서 베드로, 최경환 프란치스코, 최영이 바르바라, 최창흡 베드로, 최형 베드로, 테오도로, 테오피스토, 파우스타, 프란치스코 데 포사다스, 필립파, 한국 103 위 순교 성인들, 한아기 바르바라, 한영이 막달레나, 한이형 라우렌시오, 한재권 요셉(베드로), 허계임 막달레나, 허협 바오로, 현경련 베네딕타, 현석문 가롤로, 홍금주 페르페투아, 홍병주 베드로, 홍영주 바오로, 황석두 루가

1분 명상



주님,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으니  
 저희도 십자가의 길을 따르나이다.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십자가 지셨으니  
 주님의 십자가를 조금이나마 나누도록  
 저희가 감당할 십자가를 지워 주실 때  
 투덜거림 없이 받아 안으리라 다짐하나이다.

주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겨 주시는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게 하소서,  
 아멘.